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3호> 2017년 6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세계 온천지 서밋’이 내년 5월 하순 오이타현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및 세계 각지에서 온천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오이타에 모여 관광, 건강·미용, 에너지 등 온천 활용 방법에 대해 뜨거운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What`s Up, OITA!」를 통해 세계 각 온천지의 정보 및 온천의 매력 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정보제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이타현 주목 기사>

제 19회 벳푸 아르헤리치 음악제 개최

클래식계의 슈퍼스타이자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음악제가 5월 6일~26일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小澤征爾)도 함께하여 역사에 남을 유일무이한 공연을 오이타에서 선보였습니다. 또한 5년만에 부활한 마라톤 콘서트에서는 낭독 및 영상과 함께 아르헤리치가 피아노 솔로 연주를 펼치며, 아름다운 선율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음악제와 오이타현의 PR영상인 「OITA PEACE SYMPHONY」는 구미를 중심으로 한 달만에 재생수 170만 회를 돌파하였으며, 해외 발신 용의 TV프로그램에도 소개되어, 오이타현 그리고 벳푸 아르헤리치 음악제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argerich-ops.jp/>

[예술문화스포츠진흥과]



©Rikimaru Hotta



©Rikimaru Hotta



‘럭비 월드컵 2019’ 조 추첨 퍼블릭뷰잉

5월 10일 오이타역 앞 후나이 중앙 광장에서 ‘럭비 월드컵 2019’ 조추첨 방송의 퍼블릭 뷰잉을 실시하였습니다. 게스트를 초대하여 럭비와 관련된 가벼운 토크 시간을 가진 후, 약 200명의 관람객이 숨을 죽이며 조 추첨 중계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일본의 대전 상대는 아일랜드(세계랭킹 4위), 스코틀랜드(세계랭킹 5위), 유럽 지구 1위, 유럽 오세아니아 플레이오프 승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럭비월드컵2019추진실】

<오이타현 소식>

스리랑카 캔디시와 우스키시 교류

우스키시는 스리랑카의 캔디시와의 교류 촉진 공동 선언서에 조인하였습니다. 양 시(市)는 불교를 중심으로한 사적, 문화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계기로 1967년 자매도시를 맺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이키시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캔디시의 방문단 및 주일 스리랑카 대사, 우스키 시민을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3호> 2017년 6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벳푸 로프웨이



해발 1375m에서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 ‘벳푸 로프웨이’는 1962년 개통되어 아소쿠주 국립공원의 츠루미다케 산의 중턱에서 정상까지 오르내립니다. 정원이 101명으로 서일본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로프웨이는 약 1.8km의 구간을 초속 4.1m로 운행하며, 츠루미산조 역까지는 10분만에 도착합니다. 로프웨이를 타고 정상을 향해 점점 올라갈수록 발 밑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절경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왼쪽으로는 푸른 하늘과 맞닿아있는 벳푸만, 오른쪽으로는 굽이굽이 펼쳐진 구주연산을 넘보고 바라보고 있으니 탑승시간 10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츠루미산조역에 도착하여 밖으로 나오자 대형 온도계가 현재의 기온을 알려줍니다. 현재 기온은 방금까지의 더위가 싹 가실 정도인 약 9도로, 평지보다 기온이 낮아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러 온 피서객으로 붐빈다고 합니다. 산 위로는 곳곳에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벳푸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동쪽 전망대에선 시코쿠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츠루미다케 산은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다는 있다는 영산(靈山)으로 신사와 함께 건강, 재물, 장수 등의 복을 가져다준다는 칠복신 순례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벳푸만의 전경을 어느 정도 즐겼다면 다음은 칠복신을 만나러 이동합니다. 행복과 건강의 신인 후쿠로쿠쥬(福祿壽)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칠복신을 찾아가 행운을 빌어 보는 것도 이 곳만의 또 다른 즐거운 요소가 됩니다. 도중에 계단을 오르면 츠루미다케산 정상에 도달합니다. 가장 힘들이지 않고 정상을 밟은 셈이지만 표지석 옆에 서니 왓지모를 성취감이 듭니다.

츠루미다케산은 봄에는 벳꽃과 진달래의 일종인 미야마키리시마가 만개하고, 가을에는 고운 단풍이 능선과 골짜기를 수놓습니다. 겨울에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붙어 생기는 무빙(霧氷)이 순백의 얼음나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름에는 야간 운행을 실시하므로 벳푸만의 아름다운 야경도 감상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CNN이 선정한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벳푸 로프웨이를 타고 츠루미다케 산이 빚어내는 계절의 절경과 파노라마를 감상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벳푸 로프웨이 운임>

어른 왕복 1600엔, 편도 1000엔 / 어린이 왕복 800엔, 편도 500엔

※날씨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방문 전 날씨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탑승권 할인 쿠폰을 프린트해가시면 100엔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3호> 2017년 6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규슈 올레 벳푸 코스



올레란 ‘큰 길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이라는 제주도의 방언으로, 현재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보여행 코스입니다. 이 제주 올레가 규슈에도 전해져 만들어진 길이 바로 규슈 올레입니다. 규슈의 자연과 온천, 문화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규슈에만 총 19코스가 있으며, 그 중 오이타현에는 고코노에·야마나미 코스, 오쿠분고 코스, 벳푸 코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직접 다녀온 벳푸 올레는 산상호수인 시다카호를 출발하여 다시 돌아오며, 규슈 올레 코스 중 출발과 도착 지점이 같은 유일한 코스입니다. 호수와 대나무, 츠루미다케 산과 유후다케 산 등 푸르른 자연을 끼고 걷는 벳푸 코스는 규슈 올레 팸플릿에 난이도 중상으로 소개되어, 처음 걷는 올레길을 과연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러나 출발 지점부터 폭신한 숲길이 이어지며 제법 여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길쭉한 나무들로 우거진 숲 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쩌나하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올레 표식인 리본과 이정표를 발견하곤 안심이 되었습니다. 걷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자 유후다케 산과 주변 풍경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고 허기진 배도 채울 겸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하니 늘 먹던 편의점 주먹밥도 더욱 맛있게 느껴집니다. 다시 작은 폭포를 지나 흙 내음 가득한 오솔길을 올라가자 수령 500년이 넘는 우람한 삼나무를 자랑하는 아타고 신사가 나왔습니다. 작은 신사와 대조적으로 도리이를 압도하는 웅장한 삼나무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신사를 지나 도착한 에다고 공민관은 벳푸 올레의 휴게소로 지정되어 화장실과 테이블,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꽃창포로 유명한 가구라메코 호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꽃창포는 6월부터 피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한바퀴 산책하기 좋은 한적한 호수였습니다. 길었던 코스도 어느덧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지점이자 도착 지점인 시다카호 호수에 도착하자 잔잔한 호수에서 한가로이 노니는 백조와 잉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청량한 하늘과 평화로운 풍경이 올레길에서 쌓인 피로도 잊게 만듭니다.

평소 온전히 자연의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벳푸 올레의 고요하고 호젓한 숲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규슈 올레 벳푸 코스 : 거리 11km, 소요시간 3~4시간, 난이도 중급~상급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버스 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벳푸프리 미니 패스 이용 추천)

